FOMC 구성원들의 최근 발언 정리 (8/30기준)

김석환 |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seokhwan.kim@miraeasset.com

글로벌 투자 파트너 –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

DOVES ← NEUTRAL → HAWKS

VOTERS

Board

아드리아나 쿠글러
이사

(7/16) 지난 3개월 동안의 데이터에서 보다 빠른 디스인플레이션과 고용이 둔화되지만 탄력성을 유지한다면 올해 말 통화정책 완화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

리사 쿡
이사

(6/25) 올해 남은 기간 동안 12개월 인플레이션이 횡보하다가 내년에는 더욱 급격하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. 3, 6개월 인플레이션율의 하락은 험난한 과정.

마이클 바
부의장/은행감독

(5/21) 1분기 인플레이션 수치는 실망스러워.이러한 결과는 통화정책 완화의 자신감을 높이지 못해.제한 정책이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좀 더 시간이 필요.

필립 제퍼슨
부의장

(5/20) 현재 통화정책은 제한적. 향후 들어오는 경제 데이터, 전망 및 위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해 결정할 것. 금리에 민감한 지출에 대한 수요 타격 예상.

제롬 파월
의장

(8/23) 정책을 조정 할 때가 왔음. 이동 방향은 명확하며, 금리 인하의 타이밍과 속도는 유입 데이터, 변화하는 전망, 위험의 균형에 달라질 것임.

크리스토퍼 윌러
이사

(7/17) 현재 데이터는 연착륙 달성과 일치.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 몇 달 동안 데이터를 찾을 것. 정책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 가까워져.

미셸 보우먼
이사

(8/20) 앞으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2% 목표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계속 보여준다면 점진적 금리 인하 적절. 다만, 상승 위험도 여전히 남아.

FRB

메리 델리
샌프란시스코

(8/26)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음. 우리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정책을 매우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싶지 않음. 과한 긴축은 노동시장과 성장에 제한

라파엘 보스틱
애틀란타

(8/28) 우리가 금리를 인하한 후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를 원하지 않아.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오래 기다려야 할 것

존 윌리엄스
뉴욕

(7/17)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 고무적이지만,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필요한 확신을 가지려면 앞으로 몇 달 동안 추가 증거를 확인해야 할 필요 있음.

베스 해맥
클리블랜드

오는 8월 21일 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. 8월 22일 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잭슨홀 컨퍼런스에 첫 공식 일정을 소화할 듯. 또한 9월 FOMC 회의에서 투표권 행사.

토마스 바킨
리치몬드

(8/26) 노동 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지지하지만,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상승 위험이 있음. 향후 6개월 동안 정말 좋은 데이터 필요.

NONVOTERS

Alternate

오스탄 굴스비 ★
시카고

(8/23) 인플레이션은 2%로 가는 길에 있음. 우리는 고용 측면에 대해서 조심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음. 과열되지 않은 경제에서 긴축할 필요 없음.

패트릭 하커
필라델피아

(8/23) 금리 인하 과정을 시작할 때가 됐음. 그러나 금리 인하 경로는 '체계적'이어야 함. 실업률 급격하게 상승할 '큰' 위험 못 봤지만, 5%는 넘지 않을 것.

수잔 콜린스 ★
보스턴

(8/22) 정책 완화를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. 경제는 꽤 좋은 상태이고, 위험 신호는 보이지 않음. 노동시장은 건강하며, 이를 보존하고 싶음.

알베르토 무살렘 ★
세인트루이스

(8/15)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% 목표치를 향해 돌아오고 있으며, 노동시장은 더 이상 인플레이션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. 금리를 인하하기에 적절한 시기.

로리 K. 로건
댈러스

(6/18) 중립 금리는 팬데믹 이전보다 아마도 더 높을 것.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은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나타내, 소매판매 둔화는 경제 활동 냉각 암시.

제프리 슈미트 ★
캔자스시티

(8/22) 금리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지는 않아. 우리에게 결정할 시간은 충분. 인플레이션이 2%에 도달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음. 향후 데이터 중요.

닐 카시카리
미니애폴리스

(8/19) 인플레이션이 진전되고 노동시장에 몇 가지 우려스러운 징후가 타나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필요성 커져. 단, 25bp 이상의 인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.

(자료 : Fed, 언론종합,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/ 주: ★ 2025년 투표권 보유 위원)